



작성: 김태원 객원연구원(kim.tae.won@ydi.or.kr)

1. 최근 동향

□ (9.15) 호주·영국·미국 3국간 안보협약 ‘AUKUS’ 발표

- AUKUS(Australia-UK-US) 안보협약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영국이 비핵보유 국가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것임
 - 미국과 영국이 1958년 상호방위조약(Mutual Defense Agreement)을 통해 핵기술을 공유한 이래 6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군사적 핵기술을 제3국과 공유
 - 향후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을 획득, 중국을 상대로 한 지역 해양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능력의 대폭 향상이 가능하다는 전망
- 동 협약 발표 직후, 3국(호주·영국·미국)은 중국, 가까운 동맹국 및 안보협력 세력인 프랑스, 유럽연합(EU)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
 - 호주의 핵잠수함으로 인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역에서 미·중 전략경쟁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

2. AUKUS 안보협약의 의미

- 인도·태평양 지역에서 21세기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‘3자 안보 파트너십’ 형성
- 단순히 군사협력만이 아니라 중국과 전략 경쟁의 주요 부문인 안보, 국방과학, 기술, 산업 기반, 공급망에서 협력까지 포괄
-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‘미국과 영국이 18개월 안에 호주가 핵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한다’는 대목
 - 물론, 핵잠수함 지원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

- 그럼에도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-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, 특히 군사적 경쟁에서 미국과 영국은 인도-태평양 지역 해양 거점인 호주를 강화한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

3. AUKUS 안보협약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

□ 인도-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정치적·안보적 파장

- 호주에 대규모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던 프랑스에서 강력한 불만 제기
 - AUKUS 결성을 계기로 호주가 해당 계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자, 이에 반발한 프랑스는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양국은 외교적 위기에 놓임
- 유럽연합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, EU를 탈퇴한 영국과 미국, 호주의 3자 안보 동맹에 대해 불편한 심기 표출
 - 조제프 보렐(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), “유럽연합이 이런 안보 관련 주요 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”
 - 마스(독일 외교장관), “(AUKUS 결정이 내려진 방식) 짜증나고(irritating) 실망스럽다(disappointing)”
-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으로 알려진 QUAD의 핵심 멤버인 미국, 호주 그리고 2021년 초 참여 의사를 밝힌 영국의 안보협력은 중국 견제의 목적
 - 자오리젠(중국 외교부 대변인), “지역 평화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군비 증강을 부추길 것”
- 한반도 문제 외의 지역 전반의 정세에 대한 논평을 많이 하지 않는 북한도 비판 대열에 동참
 - 북한 외무성, “미국이 영국, 호주와 3자 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유발시키는 매우 재미없고 위험천만한 행위”
- 호주가 핵잠수함 운용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남아 주요 국가, 특히 남중국해에 면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반응도 부정적

- 이스마일 샤프리 야콥(말레이시아 총리), “AUKUS가 지역 내 다른 강대국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구실을 제공한다”
- 인도네시아 정부, “지역내 군비증강과 힘의 투사에 우려한다”

4. 호주의 대중관계가 한국-호주 관계에 갖는 시사점

□ 한국-호주 간의 양자 관계

- 2013년 이래 한국은 호주와 외교국방장관회의(2+2) 회의체를 형성해 운영
 - 한국이 가진 2+2 협의체는 미국 외에 호주가 유일함
- 2021년 호주가 미국과 진행하는 탈리즈먼 세이버(Talisman Sabre) 훈련에 한국이 참여
 - 양국 해군 사이 해돌이-왈라비(Haedori-Wallaby) 훈련도 있음
- MIKTA(Mexico, Indonesia, Korea, Turkey, Australia) 협력을 포함해 지역의 다양한 다자회의에도 파트너로 참여
 - 지역 다자협력에서 한국과 호주는 동류국가(like-minded countries)라는 점도 꾸준히 강조
- 나아가 호주와 한국은 지역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음
 - 양국은 인도-태평양 지역의 구성국으로서 인도-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유사한 영향을 받음

□ 미국의 對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한 호주

- 이러한 양국 간의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, 명백히 호주와 한국의 對중국 인식과 대응전략은 점차 간극이 커지고 있는 양상
 - 호주는 ‘중국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’에서 점차 ‘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’으로 변화
 - 한국에서도 사회·문화적 논란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, 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잠재적 안보, 경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

- 그러나 우리 정부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

□ 한국과 호주의 입장 차이

- 호주와 한국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담론,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전해 온 역사적 경로가 상이
 - 호주의 對중국 인식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국가 안보에 대한 큰 위협 없이 발전해옴
 - 반면, 한국은 한반도 문제, 강대국 경쟁 등 매우 복잡한 전략적·안보적 맥락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형성됨
 -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안보 위협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‘북한’이라는 안보 위협이 존재, 북한 문제 관리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입장 상존
-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으로도 호주와 한국의 상황은 명백한 차이가 있음
 -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호주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더욱 느끼기 쉬움
 - 또한 지리적 인접성,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정학적 고착성 때문에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, 대결적 자세보다 협력적·타협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

5. 향후 과제 및 전망

□ 한국과 호주의 對중국 입장 차이

- 한국과 호주는 크게 달라진 양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대응 방식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,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중국 변수가 등장해 협력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함
- 중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·태평양전략 간 협력에도 영향
 - 2021년 아세안 지역의 보건, 백신 관련 협력, 금융과 인프라 협력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,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, 아세안 지역의 해양 환경, 사이버 안보, 스마트 시티 관련 협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

□ 향후 과제

- 최근 미·중 화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·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'균형외교'에 대한 미국 조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됨
 - AUKUS에 빚대어 핵잠수함 기술을 받은 '호주'가 되느냐,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'프랑스'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주장이 직·간접적으로 제기
 -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택일의 시간이 도래
- '안미경중(安美經中)'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하며, 한국 입장에서 통상 외에도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국 편에 서야함
 - 반도체와 연계된 기술 특히,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감안해야 함
- 한편, 한국과 호주가 공동의 전략으로 아세안에 접근할 경우, AUKUS, QUAD 등 호주가 참여한 미국과의 협력, 對중국 전략에 대해 아세안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